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엿볼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뾰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예절간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천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곤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¹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底)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시들하구나. (碧天如海露凄凄)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갯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우는 돈우(頓于)*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錢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이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요.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시게! 잘 가시게!”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 주우, 두홍 : 최척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 안남 : 베트남.

* 왕자진 :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죄를 입어 서인이 되었음.

* 돈우 : 옥영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

* 사우 : 돈우가 옥영에게 붙여 준 이름.

1.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 ②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 ③ 두 인물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 ④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한다.

2. 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환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① '경자년', '4년' 등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②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시가 옥영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③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척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④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이겠군.
- ⑤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환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읽기 전 활동

위 작품은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와 각국 백성들이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인물들의 이산과 귀향임을 잡고 작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씨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엽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펄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서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곧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¹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欲墜)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碧海如海露凄凄)

* 주우, 두홍 : 최척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 안남 : 베트남.

* 왕자진 :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죄를 입어 서인이 되었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먼저 최척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척은 주우 등과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남에 이르게 됩니다. 안남에서 최척은 일본인 배에서 엽불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함을 느껴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부르며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뱃사람들은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격분한 사람도 분을 가라앉힐 정도로 피리 소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인 배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를 읊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위에서 최척은 피리를 불며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푼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현재 최척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위 작품은 인물들의 이산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척이 현재 이산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가슴속에 회한이 맺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꿩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럼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시를 읊는 소리가 처절해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들린다고 합니다. 일본인 배에서 시를 읊는 인물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척은 시를 듣고 놀라 피리를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최척에게 어디 안 좋은 곳이 있냐고 묻고, 최척은 이 시구는 헤어진 아내가 손수 읊은 시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최척은 시

구를 들고 놀란 것입니다. 두홍은 자신이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 하지만, 깊은 밤에 시끄럽게 하면 사람들이 동요한다며 내일 아침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애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 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백사람들이 저자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우는 돈우(頓宇)*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질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錢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요,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시게! 잘 가시게!”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 돈우: 옥영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

* 사우: 돈우가 옥영에게 붙여 준 이름.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최척은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되어 일본인 배에 가 시를 읊은 인물에 대해 물어봅니다. 시를 읊은 옥영 또한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익히 들었던 것이라 남편 생각에 시를 읊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은 결국 재회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기이한 일이라며 매우 놀랍니다. 최척과 옥영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주위 사람들 또한 이를 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우는 돈우에게 금을 주며 옥영을 사오려 하지만 돈우는 어떻게 옥영을 팔아서 먹고 살겠냐며 오히려 은자 10냥을 꺼내며 옥영에게 잘 가라고 합니다.

최척과 옥영이 이산한 상황에서 결국 재회하게 되고, 주위 인물들 또한 이 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된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척과 옥영이 이산했다가 다시 재회하는 것이 주요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았기에 이런 작품은 빠르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 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 최척과 옥영은 이산을 해 타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들은 옥영이 시를 읊고, 이 시를 들은 최척이 옥영을 찾아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②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 최척이 피리를 불게 되고, 옥영은 이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조선의 곡조인데다 익히 들었던 것이라 남편 생각이 나 시를 읊게 됩니다. 최척은 이 시가 아내가 손수 지은 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해 최척과 옥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두 인물이 평소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두 인물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주변 사람들의 오행으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어진다.

→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최척과 옥영이 우여곡절을 겪지는 않습니다. 최척과 옥영이 재회한 후 주변 사람들 또한 두 인물의 재회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⑤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한다.

→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의구심을 유발하는 주변 인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물들은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슬퍼하면서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 위 작품에서 초월적 존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최척이 피리를 불고, 옥영이 시를 읊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두 인물이 재회하게 됩니다.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 밤에 최척이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위기에 처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척이 자신의 처지가 슬퍼 피리를 부는 시간입니다.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 밤에 최척은 옥영의 시를 듣고 옥영과 헤어진 사연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두홍은 자신이 일본인 배에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지만 밤에 시끄럽게 하면 사람들이 동요한다며 아침에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렇기에 밤에 새로운 계획이 구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된 후 최척은 바로 일본인 배로 가 이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 아침에는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이 비화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최척과 옥영이 재회를 하는 시간이므로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 밤은 주인공인 최척이 옥영의 시를 듣고 헤어진 아내를 떠올리게 되면서 시를 읊은 인물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그 후 아침에 결국 옥영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러

므로 밤에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에는 그 서사적 긴장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②

<보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환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① '경자년', '4년' 등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 주는군.

→ '경자년', '4년' 등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또 <보기>에서 위 작품은 임진왜란 등을 시간적 배경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이 옥영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군.

→ 옥영이 읊은 시는 최척과 옥영이 헤어지기 전에 옥영이 손수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옥영이 읊은 시의 내용이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척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군.

→ 최척은 '조선의 곡조'를 피리로 부르게 되고, 옥영은 이를 듣고 '조선말'로 시를 읊게 됩니다. 현재 두 인물이 있는 곳은 조선이 아니라 안남입니다. 외국에서 조선의 말을 듣고 두 인물이 서로 반응한 것이고, 결국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는 두 인물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이겠군.

→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했듯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 돈우는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내게 됩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